보도 금지

4 월 16 일 목요일 오전 5 시(미국 동부 표준시)/오후 6 시(한국 표준시)

문의: Katie Glenn, kglenn@acc.org

언론 보도 자료: 심혈관 질환(CVD)을 앓는 한국 여성들, 위험 요인 관리의 공백에 직면

경주, 대한민국 (2026 년 4 월 16 일) — 4 월 17 일부터 18 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ACC Asia 2026 Together with KSC Spring Conference'에서 발표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 여성들은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율과 치료율이 높았으나 조절률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성별에 특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20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4 년~2023 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조사된 위험 요인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및 흡연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고혈압,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는 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율, 치료율 및 조절률을 추산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 질환 환자 중 남성의 수가 더 많았고 남성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인지율과 치료율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 중인 환자들의 실제 조절률은 오히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10 년의 조사 기간 동안, 대부분의 관리 지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성은 위험 요인이 더 많지만, 여성은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지율과 치료율이 비슷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중년 여성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성별에 특화된 표적 전략이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라고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김선지 박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는 밝혔습니다.

초록 사본을 받거나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홍보실의 Katie Glenn(kglenn@acc.org)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CC)는 전 세계의 심혈관 치료를 혁신하고 모두의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헌신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75 년이 넘는 세월 동안 ACC 는 140 개국 이상에 걸쳐 6 만 명이 넘는 심혈관 전문의들에게 최첨단 교육 및 옹호 활동, 엄격한 전문 자격 인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임상 지침을 제공하며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JACC Journals 와 NCDR 등록 시스템부터 Accreditation Services, 전 세계 지부 및 분과 네트워크, 그리고 CardioSmart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는 과학, 지식, 혁신을 통해 환자 치료 및 결과를 최적화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CC.org* 에서 확인하거나 소셜 미디어 @ACCinTouch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